

'가족이 즐기고 머무는' 담양 대나무축제 5월2일 개막

“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 5일간 죽녹원 일원서 대통주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이 올해 제24회 담양 대나무축제를 관광객이 많것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연을 시작으로 대나무 드론 날리기, 대나무 뗏목 타기, 대통주 담그기 등 대나무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대나무 조형물(소원트리, 소망등 터널, 솟대, 꽃탑) 포토존과 경관을 조성하는 등 다채로운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며,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팝업스토어도 함께 운영하여 가족 단위 관

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기간 죽녹원을 밤 9시까지 개방하고 야간 경관을 조성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거듭날 계획이다.

아울러 죽녹원 입장권(3,000원)은 축제장과 읍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지역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등 판매장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한편, 대나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설재록)를 운영하고, 군은 준비 상황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축제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지는 화합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21일까지 전시·체험, 음식·디저트, 농·특산물 판매 부스 참가자 모집하는 등 축제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광선 군수권한대행은 “담양군 대표 축제인 대나무축제가 올해는 가정의 달 연휴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남녀노소,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다채롭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대나무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대나무의 맑고 푸른 기운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강진군보건소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한 건강관리 워크온 사업'을 새롭게 단장해 오는 4월 1일부터 더욱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걷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똑같은 목표량을 설정해 목표량 달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견과 모니터링단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

19~79세 대상자는 기존 방식 그대로

강진군, 80세 이상도 부담없는 '워크온 챌린지' 개편

연령별 목표 차등 적용 달성하면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25일간 매일 8,000보씩 총 20만 보 걸기로 워크온 챌린지가 운영된다. 80세 이상 대상자는 25일간 매일 4,000보씩 총 10만보 걸기로 조정된다. 고령의 참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루 걸음 수를 4,000보로 설정했다.

목표를 달성한 군민에게는 강진사랑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모바일 앱 'chak'(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연령대가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강진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61-430-52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진군은 80세 이상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경로당 순회방문 및 보건소사업과 연계한 사업 출장 때 건강과 보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화순군, 65세 이상 노인 무료 결핵 검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결핵 발생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에서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노인 결핵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지만, 무증상 경우도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다.

결핵 검진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변증 지참 후, 보건소 결핵실을 찾아 가면 된다.

결핵 검진은 흉부 엑스선 촬영으로 진행되며, 판독 결과 결핵 의심 소견 또는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될 시 가래 검사를 추가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다.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보건소에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며,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나무 심기 문화 확산

진도군과 진도군산림조합은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나무 심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일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2025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원, 김인정 전남도의원, 허용범 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무 나눔 행사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무 심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함평군 해보면,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환경보전 앞장

전남 함평군 해보면(면장 정선희)이 봄을 맞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지역 환경 정비에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해보면과 해보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20여 명이 협력해 지난 14일 고막원천 일원에서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해보-월야 경계를 흐르는 고막원천 하천변에서 진행됐으며 버려진 비닐, 담배꽂초, 병, 캔 등 각종 생활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깨끗한 환경은 지역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광군, 초등학교 개학기 맞이 등굣길 안전캠페인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4일 영광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안전관리과,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개학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 식품, 제품, 환경 분야 위해요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에 힘썼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등굣길 주변에서 현수막, 어깨띠, 손팻말을 활용한 캠페인을 펼치며 안전한 등굣길을 유도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해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